

# 영국의 차세대 디지털 전략인 '디지털 브리튼(Digital Britain)' 추진 동향

■ 권 성 미\*

## 1. 개요

영국에서 방송통신부문은 에너지 및 금융서비스와 더불어 가장 큰 경제영역을 차지하는 산업으로서,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전체 GDP의 8%에 달한다. 또한 디지털 경제는 지난 1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일례로 영국은 인터넷 광고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일 뿐만 아니라, 2012년까지 전체 거래의 20%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sup>1)</sup>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전체 영국 경제를 이끌어갈 전략 산업으로 디지털 경제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지난 1월 29일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의 방송 정책 및 기업부(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BERR)의 통신·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스테픈 카터(Stephen A Carter) 국무상은 '디지털 브리튼(Digital Britain)' 추진 전략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간보고서에는 방송통신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원, (02)570-4009, smkwon@kisdi.re.kr

1) 영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 및 전자상거래 비율에 대한 전망은 BERR·DCMS(2009) 참조.

하는 것은 물론, 국민 모두가 디지털 기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폭넓은 정책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디지털 브리튼의 추진 목표와 실행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2. ‘디지털 브리튼’ 추진 전략

‘디지털 브리튼’ 계획은 지식기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본 인프라로서 유무선 네트워크 정비와 영국 고유의 콘텐츠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접근 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도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 브리튼’ 계획은 크게 다음의 다섯가지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표 1〉 ‘디지털 브리튼’의 5대 목표

구분	내 용
목표 1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유무선 및 방송 네트워크의 개선 및 현대화
목표 2	디지털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역동적인 투자 환경 조성
목표 3	영국 국민을 위한 영국 고유의 콘텐츠 육성: 모든 영국 시민의 흥미와 경험 및 수요에 부응하는 콘텐츠 육성, 특히 공정한 뉴스, 논평, 분석 제공
목표 4	모든 국민의 공정한 접근성 보장: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사회에 보편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활용 능력(digital literacy) 향상
목표 5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

보고서는 디지털 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 보편적 접속, 보편적 서비스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부문의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2012년까지 추진해야 할 22가지의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 (1) 디지털 네트워크

디지털 네트워크는 기업의 디지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반 개인들이 다양한 기기로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본 인프라로서의 의미가 크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차세대 가입자 네트워크(Next Generation Access Network), 모바일 무선 네트워크,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위한 디지털 방송 네트워크에 대한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차세대 가입자 네트워크(NGA)와 관련해서는 차세대 브로드밴드 커버리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전략그룹 신설, 인프라 확산의 장애요인 제거, 투자자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지역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기술적 자문 등의 실행계획이 제시되었다. 둘째, 모바일 무선 네트워크 향상을 위해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현대화 프로그램’ 실시 계획을 담고 있다. 셋째, ‘DTV 전환 지원 계획’을 실시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공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방식<sup>2)</sup>에 의한 디지털 라디오 전환 추진 계획도 담고 있다.

## (2)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진흥과 더불어 콘텐츠 활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보호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첫째, 디지털 콘텐츠의 경제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향후 발표될 최종보고서에서 광고 수익을 대체할 자금확보 메커니즘 및 크리에이티브 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대책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둘째, 저작물의 합법적 사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및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불법적 사용의 방지를 위한 계획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저작권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동시에 합법적 사용을 위한 교육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P2P 사이

2) DAB는 유럽식 디지털 라디오 방식으로서 1블록당 다수의 오디오 및 데이터 프로그램을 다중화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기술방식이 지상파DMB와 동일하나 전송매체가 오디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전자신문, 2009. 1. 29).

트를 활용한 공유에 대한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영국 고유의 콘텐츠 제공에도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매체가 다양화되고 채널이 증대되면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기술적 선택의 폭이 넓어진만큼, 공정한 뉴스 보도를 비롯하여 영국민을 위한 고유 콘텐츠의 제공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미디어 기업간 합병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정부는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 OFT)과 통신청(Ofcom)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검토를 거쳐 권고사항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향후 신규사업자의 진입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으로 인한 독립제작사와 방송사간 거래 조건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Channel 4와 BBC Worldwide의 합병을 통해 BBC와 경쟁할 수 있는 제2의 공영방송사 설립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

### (3) 보편적 접속

국민 모두가 디지털 경제 및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보편적 접속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012년까지 2Mb/s 속도의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확대함으로써 보편적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편적 서비스 약속(Universal Service Commitment)'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둘째, 지난 해 10월에 발표된 '디지털 통합 활동 계획(Digital Inclusion Action Plan)'의 권고안에 따라 보편적 접속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전담반(public service champion)을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BBC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모든 콘텐츠 사업자 및 기기 제조업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오픈 스탠다드 플랫폼을 개발하도록 장려하였다. 넷째, 많은 시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전달계획(Public Service Delivery Plan)'도 제시하였다.

#### (4) 보편적 서비스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브리튼'의 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미디어 활용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고서에서는 사용자 교육 확대, 미디어 리터러시(활용능력) 강화, 온라인 상에서의 사용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는 Ofcom에서 BBC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기존의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법안 및 규제체계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가 미디어 리터러시 계획(National Media Literacy Plan)'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 3. 결 어

영국 정부는 2008년도부터 시작하여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의 연장선 상에서 추진된 '디지털 브리튼' 계획은 단순히 DTV 및 디지털 라디오로의 전환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위하여 네트워크 정비에서부터 콘텐츠 육성 및 활용의 보편화까지 아우르고 있으므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보고서 발표 내용에 대해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토리당의 제레미 헌트(Jeremy Hunt)는 브로드밴드 확산과 관련하여 2012년까지 영국내 모든 가정에서 2Mb/s의 브로드밴드에 접속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이를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 동원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sup>3)</sup> 또한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으로 정부 주도의 전략 그룹을 신설하는 안이 제시되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sup>4)</sup> 하원 문화위원회 의장인 존 휘팅데일(John Whittingdale)도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2Mb/s의 브로드밴드 속도는 다른 나라에 뒤진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sup>5)</sup>

3) Guardian, 2009. 1. 29

4) Computing, 2009. 1. 30

5) Guardian, 2009. 1. 29

현재 발표된 '디지털 브리튼' 계획은 중간보고서의 성격이므로 제안된 22개의 실행 계획에는 향후 최종보고서에서 구체화하겠다는 내용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또한 현재 중간보고서에서 발표된 실행계획 전반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따라서 오는 4월에 발표될 예정인 '디지털 브리튼' 최종보고서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비판을 비롯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구체화된 계획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브리튼' 계획은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발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실행 계획 및 향후 추진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 BERR·DCMS(2009), *Digital Britain: The Interim Report*. 2009. 1. 29.  
《전자신문》(2009. 1. 29), “라디오도 2013년 디지털방식으로 전환”.  
《Computing》(2009. 1. 30), “Lukewarm response to Digital Britain report”, 2009. 1. 30. (<http://www.computing.co.uk>)  
《Guardian》(2009. 1. 29), “Digital Britain: Government criticised over commitment to 2Mbps broadband”.